



# 재미 국제결혼여성의 다방향적 인정투쟁

— ‘나도 한국의 딸’과 ‘모범적 소수자’를 넘어  
초국적 여성연대로 —\* \*\*

김 은 경

- |                                                       |                                            |
|-------------------------------------------------------|--------------------------------------------|
| I. 머리말: 마이너리티 역사와 인정정치                                | IV. 국제결혼여성의 단체 결성과 활동: ‘한미부인’에서 ‘국제결혼여성’으로 |
| II. 한국 민족주의의 배제와 세계화 이후 변화: 국제결혼여성의 타자화와 ‘재외동포’ 인정 담론 | V. 국제결혼여성의 다방향적 인정투쟁                       |
| III. 미국 다문화주의의 ‘포용’ 전략과 ‘모범적 소수자’                     | VI. 맺음말                                    |

## I. 머리말: 마이너리티 역사와 인정정치

지금부터는 우리 동포들 중 국제결혼한 한국 여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헌신적으로 좋은 한국을 심고 있는 일들을 아낌없이 치하하고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아량을 갖고 품위를 갖는 멋진 21세기의 한국 민족이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의 언론계와 사회, 정계 지도급 인사들은 국제결혼한 여성들의 보이지 않는 민간 외교, 한국문화를 알리고 있는데 대하여 높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많은 한국 친척들을 미국에 초청해서 교육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그들을 통해 막대한 미국 달러가 한국으로 송금되고 있다. 바로 그 달러가 국가발전에 큰 몫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

\* 이 논문은 2017년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 S1A5A2A03067821).

\*\* 이 논문은 2021년 4월 17일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낙인’에서 ‘인정’으로: 재미 국제결혼여성의 인정투쟁」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세심하고 사려 깊은 조언을 해주신 토론자 염운옥(경희대) 선생님과 『사람』의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결혼 여성들의 노고를 전 국민에게 인식시켜주기 바란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국제결혼한 여성들에 대한 차별 정신을 버리고 좀 더 선진 국가와 선진 민족다운 마음과 태도로 앞으로는 국제결혼 여성들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sup>1)</sup>

위의 인용문은 재미 국제결혼여성 단체인 한미부인회의 초대 회장 송전기의 저서 『나도 한국의 딸』에 나오는 대목이다.<sup>2)</sup> 송전기는 미국인과 결혼한 여성들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멈추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라고 외쳤다. 이는 오래 지속되어온 부당한 차별에 대한 저항이자 “선진 국가와 선진 민족”에 걸맞게 새로운 정의를 실현하라는 윤리적인 목소리이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현재에도 재미 국제결혼여성들의 인정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개 미주 한인사는 하와이 이주 노동자의 ‘개척 정신’과 독립운동가의 활약상을 자긍심의 원천으로 삼아 이역만리 타향에서 한인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온 과정에 초점을 둔다.<sup>3)</sup> 이런 서사는 한국 민족주의에 기초해 ‘재외동포’를 확대 재생산하는 한국의 세계화 전략과 상통한다. 이것은 민족담론에 부합하거나 일부 주류화(mainstreaming)에 성공한 사례만 추출함으로써 다시 ‘동포’ 내부의 타자를 생산하고 주변화한다는 점에서 (마이너리티 역사인데도) 마이너리티에 반하는 인식론을 드러낸다.

이런 경향을 비판하며 국제결혼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학계 노력이 지속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초기 연구는 재미 한인 학자들의 인구통

1) 송전기, 『나도 한국의 딸』, 미래문화사, 1988, 145-146쪽.

2) 송전기는 1928년생으로, 동국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한국 외무부와 중등고등학교에서 근무했다. 미국 원조기관 USOM의 직원인 남편을 만나 1953년 미국으로 이주했다가 1955년 남편의 한국 발령으로 귀국해서 신부학교를 열었다. 그 뒤 수단에 잠시 살다가 1963년 워싱턴DC로 이주해서 한미부인회를 창립했다.

3) 미주한인사에서 국제결혼여성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예컨대,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동포사(『재외동포사총서: 북미주 한인의 역사』 I-II, 국사편찬위원회, 2007)는 한인사회 형성에 큰 역할을 한 국제결혼여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021년 미주한인회에서 발행한 책(『미주한인회, 동포 사회의 발전과 도전』, 미주한인회 서북미연합회, 2021)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미주한인회 서북미연합회는 국제결혼여성들의 항의를 수용해 재발행을 결정했다. 2023년 4월 현재, 국제결혼여성의 역사를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계학적인 조사분석이 주를 이룬다.<sup>4)</sup> 여성 이주사에 관심이 커지면서 재미 국제결혼여성의 구술생애사나 재현에 주목한 연구가 늘었다.<sup>5)</sup> 미군과 결혼한 한인 여성을 조명한 여지연의 저서는 이 분야의 선구적인 업적으로 꼽힌다.<sup>6)</sup> 구술자 16명을 만나 인터뷰한 자료를 분석한 여지연은 여성들의 인식과 행위의 다층성을 포착했다. 특히 자매애에 기초한 공동체를 통해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재구성한 것에 주목하여, 이것을 한국 민족주의와 미국 다문화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한 점이 돋보인다.

미군과 한인 여성의 결혼 정책과 이주 과정을 규명한 연구는 초기 역사를 밝히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김은경은 2차 대전 후 미국 이주통제정책의 차별적 성격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주한미군에 제출된 결혼허가신청서와 구술자료를 교차 분석하여 국제결혼여성이 미국 이민정책의 틈새를 뚫고 이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 여성들과 이웃의 연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sup>7)</sup> 송하연은 미군 진주 이후 한인 여성과 결혼한 미군의 결혼 문서를 검토하여 초기 미군이 승인한 국제결혼이 인종주의에 기초한 동일 종족 간 결혼이었음을 밝혔다.<sup>8)</sup> 이와 달리, 한미 국제결혼의 이면을 한국 기지촌과 미국 내 군사시설 사이에 형성된 태평양 횡단 회로(transpacific circuits)의 맥락에서 추적한 유리 둘란의 연구도 눈에 띈다.<sup>9)</sup>

재외 한인 여성의 인정에 주목하여 미국과 독일 이주 여성의 사례를 비교한 김민정의 연구는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성과이다.<sup>10)</sup> 김민정은

4) B.-L. C. Kim, "Casework with Japanese and Korean wives of Americans", *Social Casework*, May 1972; B.-L. C. Kim, "Asian Wives of U.S. Servicemen: Women in Shadows", *Amerasia Journal* 4, 1977; S. Hong, "Another Look at Marriages between Korean women and American Servicemen", *Korea Journal*, Vol. 22, No. 5, 1982.

5) 여지연 저, 유옥희 역, 『기지촌의 그늘을 넘어: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인 군인아내들 이야기』, 삼인, 2007; 유철인,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생애사 이야기의 주제와 서사전략」, 『한국문화인류학』 29-2, 1996; 정미경, 「나쁜 년들의 숨겨진 역사: 한국계 미군 아내들의 50년 시집살이」, 『영어영문학연구』 49, 2007.

6) 여지연 저, 위의 책.

7) 김은경, 「1950년대 ‘결혼허가신청서’를 통해 본 한인 여성과 미군의 결혼과 이주: 미국의 이주통제정책과 타자의 ‘은밀한’ 연대」, 『한국근현대사연구』 91, 2019.

8) 송하연, 「인종주의의 장벽 아래에서 결혼하기: 해방 이후 주한미군 내 한국계 미국인 남성과 한인 여성의 결혼」, 『한국문화연구』 42, 2022.

9) 유리 둘란, 「태평양을 횡단한 기지촌: 한국 여성과 미군기지, 그리고 미국 내 군대 매매촌」, 『경계를 넘는 한인들: 이주, 젠더, 세대와 귀속의 정치』, 한울아카데미, 2021.

발전국가의 외화 획득전략에서 독일로 이주한 간호여성은 ‘조국에 공헌’한 ‘해외동포’로 인정받은 데 비해, 미군 아내는 그렇지 못함을 지적하고 그런 인식의 차이를 낳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담론을 비판했다.

대체로 여성주의 연구들은 혐오에 무력한 피해자 서사를 극복하고 여성의 행위성을 중시했다. 하지만 초국적 관점에서 한국계/아시아계 미국인 이주 여성으로서 여성들의 초국적 존재 조건을 주의 깊게 살핀 연구는 드물다. 여성들의 인정정치를 정면에서 다룬 연구도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마이너리티의 인정 문제는 역사학에서 낯선 주제인데, 그것이 주류 역사학에서 다뤄온 전통적인 정의 의제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발전의 주체’로서 노동자나 민중에 주목한 연구는 물질적 재화의 불공정한 분배를 비판적으로 보는 분배 패러다임과 관련되어 있다.<sup>11)</sup> 대개 (재)분배론은 사회경제적 부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착취, 경제적 주변화, 경제적 박탈의 근절을 주장한다.

이에 비해, 인정 패러다임은 특정한(‘모든’이 아니라) 차이나 정체성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억압과 차별을 분배 불평등과는 다른 차원의 부정의로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마이너리티의 인정정치를 중시한다.<sup>12)</sup>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강력하게 정치화되고 있는 “차이라는 횡단 축”이다.<sup>13)</sup> 지배적인 문화 규범에 동화하는 대신 저마다 다른 젠더, 인종, 종교 등 차이를 인정하는 게 새로운 정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거듭 강조해야 할 점은 인정을 정

10) 김민정, 「조국에 대한 공헌과 재외한인으로의 인정: 미국과 독일의 재외한인 여성 비교」, 『아시아여성연구』 57-1, 2018.

11)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나 민중사의 의제가 분배 패러다임과 모든 면에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이 소득 재분배에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분배 범주가 생산 관계와 착취구조를 간과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불의를 온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분배와 인정 논쟁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낸시 프레이저·악셀 호네트 저, 김원식·문성훈 역, 『분배냐, 인정이나?: 정치철학적 논쟁』, 사월의 책, 2014, 29쪽).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 연구과제로 돌린다.

12) 물론 인정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낸시 프레이저는 분배와 인정을 다른 차원의 정의로 보는 “관점적 이원론”을 주장하는 반면, 악셀 호네트는 분배를 인정에 속하는 파생적인 것으로 본다. 두 사람의 논쟁은 다음을 참조. 낸시 프레이저·악셀 호네트 저, 위의 책. 프레이저의 이원론에 대한 버틀러와 영의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주디스 버틀러, 「단지 문화적인!」,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서: 낸시 프레이저의 비판적 정의론과 논쟁들』, 그린비, 2016; 아이리스 메리언 영, 『제멋대로의 범주들: 낸시 프레이저의 이원론 비판』, 같은 책.

13) 낸시 프레이저·악셀 호네트 저, 위의 책, 16쪽.

의의 차원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쟁을 주도해온 프레이저는 테일러와 호네프가 인정을 자기실현의 문제로 보았다고 비판했다. 그들이 인정을 온전한 주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고, 무시를 주체성의 손상과 자기 정체성의 훼손으로 여긴다고 했다. 이에 대해 프레이저는 인정을 정의의 문제로 보고 그것을 사회적 신분의 문제로 다루자고 제안했다. 프레이저의 “인정의 신분 모델”에 따르면, 어떤 문화적 가치 유형이 행위자들이 평등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동료로 여기도록 용인한다면 “상호인정과 신분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제도화된 문화적 가치 유형이 어떤 특정한 행위자들을 배제하여 결국 그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무시와 신분 종속”이다.<sup>14)</sup>

이 연구에서는 프레이저의 주장에 기초하여 정의적 관점에서 인정투쟁을 논하고자 한다. 이제 막 시작한 마이너리티 역사 쓰기에서 정의 패러다임의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제결혼여성을 “무시와 신분 종속”으로 몰아넣은 사회 관행과 문화정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는 국제결혼여성들의 다방향적 인정투쟁을 조명하고, ‘베스트팔렌적 정의’<sup>15)</sup>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초국적 여성연대에 주목한다. 이 글에서 다루려는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여성이 차별과 배제에 도전하며 분투하는 인정투쟁이 어떤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검토한다. 기존 연구는 여성의 행위성이 어떤 조건에서 발현되는지, 그것을 둘러싼 권력장을 살피는 데에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여성의 주체화나 행위성은 지배 담론체계를 떠나서 이야기할 수 없다. “예속되는 과정”이 없이 “어떤 개인도 주체가 될 수 없다”<sup>16)</sup>는 점을 고려한다면 행위가 발휘되는 조건을 검토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14) 낸시 프레이저·악셀 호네프 저, 위의 책, 58-59쪽.

15) 프레이저는 근대 국민국가 체제가 “국적 그리고/혹은 영토 내 거주 여부에 의해서 확정되는 배타적이고 분할불가능한 시민권이라는 전제” 아래 유지되었음을 지적하고, 이를 “베스트팔렌적 체계”라고 불렀다. 또 지구화의 전개로 그런 체계의 기초 전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정의의 투쟁 범위 역시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낸시 프레이저·악셀 호네프 저, 위의 책, 162-163쪽.

16) 주디스 버틀러 저, 강경덕·김세서리아 역, 『권력의 정신적 삶: 예속화의 이론들』, 그린비, 2019, 26쪽.

국제결혼여성들의 인정투쟁에 영향을 미친 한국과 미국의 담론 상황과 규범을 고찰한다. 전자와 관련해서, 국제결혼여성에 가해진 한국의 민족주의와 배제 담론과 그 변화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아버지로 표상되는 국가와 가부장적 민족 담론이 여성들을 공동체의 밖으로 밀어냈던 과정을 살피는 한편, 이것이 “나도 한국의 딸”과 같은 인정투쟁의 수사와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통합전략이었던 다문화주의와 ‘모범적 소수자’ 담론이 전후 순종적인 ‘아시아 여성’이라는 범주를 구성해왔음을 검토하고,<sup>17)</sup> 그 속에서 여성들의 인정투쟁이 봉사와 기부를 통한 사회적 기여로 나타났음에 주목할 것이다.

둘째, 국제결혼여성의 인정투쟁 양상이 시기에 따라 변화했음에 주목한다. 기존 연구는 탈냉전과 세계화 담론의 확산 과정에서 ‘재외동포’가 새로운 범주로 구성되면서 재미 국제결혼여성이 동포의 일원으로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인정정치의 방식이 달라진 것을 간과했다. 2000년대 초 재외동포재단이 국제결혼여성들을 지원하면서부터 여성들은 미약하나마 조국의 인정체계에 편입되었다. 그 뒤 인정투쟁의 방향은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한국 정부를 향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여성들이 ‘한미부인’에서 ‘국제결혼여성’으로 정체성 변화를 꾀한 것은 한국의 인정체계 변화와 관련이 깊다고 보고 그 의미를 여러 갈래로 해석할 것이다.

셋째, 국제결혼여성들의 초국적 여성연대를 하나의 인정투쟁이자 ‘베스트팔렌적 정의’ 실현의 목소리로 이해한다. 특히 여성들이 자신들을 ‘국제결혼여성’으로 정체화한 것에 주목한다. 기존 연구가 주로 미군과 결혼한 한인 여성에 초점을 두고 그들을 ‘전쟁신부’, ‘군인 아내’ 등으로 불렀지만, 이 글에서는 여성들이 스스로 이름 붙인 ‘국제결혼여성’이라는 용어를 존중한다. 이는 이들의 인정투쟁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군 아내의 다수가 기지춘 성매매 여성이었을 거로 추정되지만, 그렇다고 그들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민간인과 결혼한 여성까지 모두 같은 혐오와 멸시를 받았다(물론 기지춘 여성에 대한 혐오가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든, 어떤 배경에 있었든 상관없이 이들은 사회적 위

17)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의 인정을 요구하고 관련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아시아 여성’ 범주가 구성되었다고 보는 견해는 로라 강의 저서를 참고. L. H. Y. Kang, *Traffic in Asian Women*, Durham, London, Duke Univ. Press, 2020.

치와 처지가 같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공통적인 경험과 정동은 여성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남편의 직업, 남편의 인종, 경제적 지위, 기지촌 성매매 경험 유무 등 여성들 내부의 차이를 상호인정하고 ‘국제결혼여성’의 이름으로 연대했던 점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것은 “인정이라는 개념이 보다 급진적인 비판을 방해하는 표준적인 주체 중심적 가정을 수반”<sup>18)</sup>한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주요 분석 자료는 한국과 미국에서 발행된 각종 문헌자료와 2019년 미국에서 수집한 국제결혼여성의 구술자료이다.<sup>19)</sup> 구술자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아래 <표 1> 과 같다.

<표 1> 구술자 정보

| 연번 | 이름<br>(가명) | 출생<br>연도 | 출생<br>지 | 결혼<br>연도 | 이주<br>연도 | 자녀    | 이주 후 직업                    | 구술일        |
|----|------------|----------|---------|----------|----------|-------|----------------------------|------------|
| 1  | 강은주        | 1947     | 서울      | 1969     | 1970     | 1남    | 간호사                        | 2019.7.24. |
| 2  | 김영화        | 1938     | 부산      | 1963     | 1964     | 2녀 2남 | 공장 노동자,<br>군부대 클럽<br>웨이트리스 | 2019.7.25. |
| 3  | 민희경        | 1956     | 전주      | 1977     | 1978     | 2남    | 목사                         | 2019.7.16. |
| 4  | 신민애        | 1958     | 서울      | 1989     | 1990     | 1남    | 꽃가게 운영                     | 2019.7.20. |
| 5  | 옥순희        | 1931     | 부산      | 1952     | 1952     | 2녀 1남 | 미용사                        | 2019.7.13. |
| 6  | 이인숙        | 1949     | 경주      | 1970     | 1970     | 1녀 1남 | 군속                         | 2019.8.8.  |
| 7  | 장미경        | 1951     | 전주      | 1975     | 1975     | 1녀 1남 | 세탁소 운영                     | 2019.7.14. |
| 8  | 한명아        | 1945     | 부산      | 1968     | 1969     | 3녀    | 병원 청소부                     | 2019.8.8.  |
| 9  | 홍자영        | 1950     | 서울      | 1973     | 1974     | 3녀    | 식당 접시닻이                    | 2019.8.7.  |

18) 낸시 프레이저·악셀 호네프 저, 앞의 책, 29쪽.

19) 이 구술자료는 2019년도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 수집사업의 지원으로 수행한 결과물이다(구술 사업명: “1950~80년대 미군 아내의 미국 이주 경험과 삶”). 나는 2019년 7월~8월 미국의 버지니아주 페어팩스(Fairfax), 조지아주 둘루스(Duluth), 워싱턴주 타코마(Takoma)에서 미군과 결혼한 한인 여성 12명을 만나 인터뷰했다. 이 글에서는 그 가운데 9명의 구술자료를 이용한다.

## II. 한국 민족주의의 배제와 세계화 이후 변화: 국제결혼여성의 타자화와 ‘재외동포’ 인정 담론

1945년 9월 미군의 남한 진주 이후 한인 여성과 결혼하려는 사례가 등장했다. 당시의 차별적인 이민법으로 인해 그 시도는 곧 난관에 부딪혔다. 1946년 두 명의 한국계 미국인 사병이 한인 여성과 결혼하고자 허가신청을 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sup>20)</sup>

차별적인 쿼터제에 의해 유지되던 미국의 이민법은 2차 대전 후 그 한계와 모순점을 극명하게 노출했다. 현지 여성과 결혼해 귀국하려는 수많은 해외 주둔 미군의 요청이 기존의 차별적인 이민법과 충돌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1945년 전쟁신부법(War Brides Act)<sup>21)</sup>을 제정해 미군의 외국인 아내가 할당제와 상관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종적 부적격자’였던 아시아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일본과 한국, 필리핀 등에 주둔한 미군의 결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자 미 당국은 마침내 1947년 7월 개정 전쟁신부법<sup>22)</sup>을 발표해 제한적이나마 수용 태도를 보였다.<sup>23)</sup> 이에 고무되어 일부는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고, 앞서 거부되었던 한 쌍은 결혼을 승인받았다.<sup>24)</sup> 그러나 이 개정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안 공포 전후 30일 안에 결혼식을 올린 부부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마저도 한 달 내에 모든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개정법의 내용이 도쿄의 GHQ를 통해 알려지는 데에도 5일이 걸려 결혼 허가 서류를 준비하기에 빠듯한 기간이었다.<sup>25)</sup> 미군 당국은 가능하면 결혼을 승인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제 한국에서 이 법의 혜택을 받아 미국으로 간 부부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 송하연, 앞의 논문, 356-358쪽.

21) PL.271, 59 Stat. 659 (December 28, 1945)

22) PL.213, 61 Stat. 402 (July 22, 1947)

23) 김은경, 앞의 논문, 147쪽.

24) 송하연, 앞의 논문, 361-365쪽.

25) M. Nakamura, "Families Precede Nation and Race?: Marriage, Migration, and Integration of Japanese War Brides after World War II", Ph.D. dissertation, Univ. of Minnesota, 2010, pp. 58-60.

이런 한계로 인해, 제도의 문제를 보완하는 법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다. 1950년 8월 외국인 배우자 자녀법(Act on Alien Spouses and Children)<sup>26)</sup>이 통과되었고, 1952년 맥캐란 월터법(McCarran-Walter Act)<sup>27)</sup>으로 불린 이민 국적법이 제정되면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과 시민권 제한이 철폐되었다.<sup>28)</sup> 미국 이민법이 완화되는 가운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군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의 수가 급증했다.

미국인과 한국 여성의 국제결혼 수를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렵다. 김복림의 연구에 따르면, 1950년부터 1975년까지 미국에 입국한 미국인의 한국인 아내는 28,205명이다. 1950년 1명이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1951년 11명, 1952년 101명 등 점차 증가하다가, 1963년을 기점으로 급증해 1천 명대로 늘었다.<sup>29)</sup> 많은 연구에서 1950년에 입국한 한국 여성을 미군 아내로 단정하지만, 그 통계로 남편의 직업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청에 소장된 사진 기록물에는 “미국으로 귀환한 최초의 한국인 전쟁신부(the first Korean War Bride to return to the States)”라고 기록된 여성(인숙 해서: Insook Hasher)이 1951년 8월 6일 미국에 도착한 모습이 담겨 있다.<sup>30)</sup> 이로 보아, 미군과 결혼한 여성들의 미국 입국은 1951년 이후로 추정된다.

1965년 신이민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미국 이주민은 대부분 미군과 결혼한 여성이거나 입양아였다. 이처럼 많은 여성이 국제결혼을 했고 그 수도도 계속 늘어났는데도, 여성들에 대한 비난과 혐오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미국인과 같이 다니기만 해도 “민족의 체면을 팔아먹는 천박한 여성”<sup>31)</sup>이라고 비난했고, ‘혼혈아’의 출산을 “여권 포기”로 여겼다.<sup>32)</sup> 미군 부대 주변에서 일하거나 미국인과 함께 다니는 여성에게는 혐오

26) PL.717, 64 Stat. 464 (August 19, 1950)

27) PL.82-414, 66 Stat (June 27, 1952)

28) 김은경, 앞의 논문, 145-148쪽.

29) B.-L. C. Kim, “Asian Wives of U.S. Servicemen: Women in Triple Jeopardy”, *Proceeding of the Conference on the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Needs of Asian-Pacific-American Women*, p. 356 (“Asian Wives of U.S. Servicemen: Women in Shadow”, *Amerasia Journal*, no.4, 1977); R. Saenz, S.-S. Hwang, and B. E. Aguirre, “In Search of Asian War Brides”, *Demography*, vol.31, no.3, 1994, pp. 550-553.

30) RG111-SC, Box no. 814; 김은경, 앞의 논문, 140-141쪽에서 재인용.

31) 『조선일보』, 1947. 1. 21.

발언이 항상 따라다녔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제결혼을 하는 여성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당시 한국 사회는 국제결혼을 육체적인 정욕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고, “교양과 경제적인 발란스”가 맞지 않기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으며 폄하하기 바빴다.<sup>33)</sup> “양가집 규수”가 미군과 결혼하는 것을 “집안 망신”이라 여겼고,<sup>34)</sup> 국제결혼여성들은 “허영과 달콤한 꿈”에 빠진 몰지각한 군상으로 재현되었다. 언론은 여성들에게 이주 뒤에도 “우리나라에 수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훈계했다.

외무부에서는 5일 이민 신청자 14명의 심사를 진행! 이민자들의 성분을 보면 여자가 8명인데 그들의 대부분이 약혼자를 찾아간다는 것이 이민 이유. **허영과 달콤한 꿈으로 도미하였다가 신세를 망친 여성들이 과거에 많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과연 국제결혼이라는 꿈속에서 이민 신청을 한 여성들이 앞날이 뻔히 들여다 보인다. 이민하는 자는 이민을 보내는 자나 우리나라에 수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으로** 이민 심사를 할 때에는 좀 신중을 기하여 신세를 망치는 여성이 없도록 하여라.<sup>35)</sup> (강조 - 인용자)

이민 사무를 취급하는 외무부 103호실 (...) 이 방에서는 미군과의 좋게 손을 맞잡고 들어오는 한국 여성이 있어도 평범한 눈으로 봐야 하는 풍속이 언제부터인가 생기고 말았다. 껌둥이 어린애를 안고 들어온 우울한 양공주나 껌을 짹 씹는 경쾌한 모습의 여인이 나타나도 신기한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국적인 표정이 흐르는 곳이다.<sup>36)</sup>

이와 달리,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한국의 문화적 자부심과 연결되었다. 한국 전통을 익히려는 외국 여성의 태도를 이름답게 그리며 칭

32) 『경향신문』, 1948. 12. 24.

33) 이선옥, 「아그네스 데이비스 김 『나는 코리안의 아내』: 195, 60년대 국제결혼 담론」, 『국어국문학』 163, 2013, 536-537쪽.

34) 「우리의 인권(4) 결혼」, 『동아일보』, 1955. 12. 15.

35) 「휴지통」, 『동아일보』, 1954. 8. 6.

36) 『경향신문』, 1955. 9. 11.

찬했다.

사랑의 승리자임이 분명한 이들은 특히 조국과 생활양식과 몸에 배인 전통을 넘어서서 이제 훌륭한 한국의 며느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우선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주위의 호기심 찬 눈길을 받아야 하고 그밖에도 기후 음식 주택 가족제도 등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사랑하는 이와 사랑하는 이가 사는 나라에 품은 이들의 정성과 이해가 이런 모든 불편을 잊게 해주고 있었다. (...) 조상에 제사를 모시고 노부모를 공양하는 일들이 이들에겐 신기하리만큼 새로워 보이지만 형식 있는 곳에 뜻이 따른다고 오히려 본받으려 애쓰고 있다. 아침저녁 시부모에게 큰절을 올리는 며느리가 있고 나들이 가는 시어머니의 웃고름을 바로 해주고 두루마기를 입혀주는 고운 마음도 어느새 배우고 있었다.<sup>37)</sup>

‘코리아의 아내’가 되기 위해 멀리 영국에서 이 땅에 찾아온 갈색 머리의 처녀 박사 ○○ 양과 대한조선공사의 ○○○ 씨가 17일 상오 여자기독교청년회관에서 이들을 축복해주는 많은 친족 친지들에 둘러싸여 백년의 가약을 맺었다. (...) 신부 ○○ 양은 이날 한복 차림의 웨딩드레스에 맑은 얼굴, 화사한 웃음을 띄우며 한국의 며느리 됄을 자랑하는 듯했다.<sup>38)</sup>

이처럼 당시 한국 사회의 국제결혼 인식은 매우 이중적이었다. 국제결혼의 주체가 한국 여성일 때는 “형태를 바꾼 사대근성이요 양품이라면 사지를 못 펴는 밀수업자의 심리와 다를 것이 없”다고 혐오했지만,<sup>39)</sup> 그 주체가 한국 남성일 경우 국제결혼은 민족문화의 ‘우월함’을 공인받는 것으로 담론화되었다. 이렇게 젠더화된 국제결혼 인식으로 인해 국제결혼여성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했다. 여성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들의 가족까지 혐오와 조롱에 휩싸였다. 구술자들도 이런 비난과 무시를 직접 경험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에서는 부대 밖에 나가 연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37) 「<희망취재> 즐거워라 한국의 집, 벽안의 며느리들 생활 근황, 익혀가는 새 환경」, 『조선일보』, 1962. 5. 7.

38) 『조선일보』, 1962. 2. 17.

39) 『조선일보』, 1962. 3. 25.

부대 땡기든지 부대 안에서 군인들하고, 미국 사람 땡긴다 하면 저거 시집도 못 보낸다고, 큰~일 나지요. 그래도 난 시집이고 뭐고 생각 안 하고 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지만도 숨겼죠. 부대 안에서만 [남편을 만났지]. 밖에 못 나가지. 그때 시절에. 미국 사람하고 그랬다면 큰~일 나지 뭐. <옥순희>

[어머니가 내게] “야, 니가 뭐가 못나서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나? 너 병신이야?”고 막 그랬어요. 니가 미국 사람하고 밖에 나가봐야 손가락질 (당)하니까 그냥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랬다고. 처음에 반대하더니 그럼 ”너 미국 사람하고 어디 가겠냐?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그래 가지고 집에 와서 밥도 해주시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강은주>

이런 차별적 분위기는 여성들이 결혼한 뒤에 한국을 방문할 때도 겪어야 했다.

내가 74년도에 한국 나가서 우리 애들 데리고도, 난 시장 갈 때 우리 애들도 안 데리고 다녔어요. 한 번은 미장원을 갔는데, 의정부에서. (...) [딸이] 문을 열고 나를 보면서 “엄마” 하고 내 곁에 안기잖아요. 그래 미용사가 깜~짝 놀라는 거야. “어마, 재 미국 아저씨 [딸] 아니예요?” “그래” 내가 그랬더니, “어후, 나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 난 [아이들과] 같이 잘 안 다녀. (질문자: 그런 게 불편하셔서?) 예,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좀 그렇더라고. 왜냐면 욕을 많이 했잖아요. 왜 사람들 있을 때는 낮춰봤잖아, 사람들을. 그리고 또 엄마는 우리 집에 애들을 데려가면 밤에 데리고 오라 그러지. <이인숙>

젠더화된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수치심을 겪었던 여성들의 경험은 한국의 부계혈연주의와 가부장제, 그리고 그에 기초한 민족주의가 이들에 가한 폭력의 역사이다.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급속한 미국화에 따른 위기감을 떨쳐내고 전후 민족(주의)을 재구성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상상하기 위해 그 경계를 만들고 ‘우리가 아닌’ 자들을 배제했다.<sup>40)</sup> 국제결혼여성을 ‘우리’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지위를 박탈한

40) 김은경, 「한국전쟁 후 재건윤리로서의 ‘전통론’과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45-2, 2006.

것은 순결함에 대한 가부장적 상상력과 그에 기초한 민족주의가 빚은 결과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미세하게나마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탈냉전과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민족의 경계 밖으로 내몰렸던 사람들을 다시 ‘재외동포’로 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것은 한편으로 지구화 시대 민족국가의 쇠퇴 현상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지만,<sup>41)</sup> 한국에서는 ‘확대된 민족국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에 발전국가 시대의 이민 장려 정책으로 국외로 이주했던 수많은 이주민이 국가의 자원으로 새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런 담론은 80년대부터 가시화되어 “재외동포의 범세계적 신장세가 국력을 재는 또 하나의 척도”<sup>42)</sup>라는 인식이 확산했다. 탈냉전 이후에는 ‘부강한 통일한국’ 담론과 결부되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해외교포 5백만의 진가는 통일 이후 나타날 것이다. 통일한국은 서쪽으로는 12억의 중국을, 동쪽으로는 1억 3천의 일본을 두고 세계열강과 경쟁해야 한다. (...) 기술도 자본도 일본보다 열악한 우리가 국제화라는 조건에서 단 하나 유리한 것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해외교포가 많다는 것이다. 일본이 13개국에 2백만의 교포를 갖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1백 20개국에 5백만의 교포가 진출해 있으니, 전 세계에 축수와 손발을 뻗고 있는 셈이다. 어찌 재산이 아니겠는가.<sup>43)</sup>

1999년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은 변화를 촉진했고, 그에 따라 ‘재외동포’라는 범주가 만들어졌다.<sup>44)</sup> 이런 호

41) 주디스 버틀러, 가야트리 스텔라 대담, 주혜연 역,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산책자, 2008, 74-78쪽.

42) 「교민정책의 큰 전환이 요청된다, 재외국민 1백 60만 명이 의미하는 것」, 『경향신문』, 1981. 11. 12.

43) 이광규, 「한국정부는 교포정책을 바꿔야한다: 오백만 해외교포 그들이 한민족의 가능성입니다」, 『사회평론』, 94-7, 1994, 124쪽.

44) 1999년 9월 2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그에 앞서 1997년 3월 27일 ‘재외동포재단법’이 제정되어 동년 10월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참조.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undefined> (검색일: 2021년 1월 20일)

름은 국제결혼여성들의 위상 변화는 물론 인정투쟁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 민족주의가 배제해 왔던 사람들까지 포용해 ‘재외동포’를 구성하고, 그들의 가치가 ‘민족의 재산’으로 재평가되면서 국제결혼여성 역시 ‘양XX’가 아니라 ‘동포’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 재외동포의 상징적 지위가 조국 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국제결혼여성들은 ‘아버지’로 표상되는 조국에 공헌한 ‘딸’로 자신들을 위치시켜 “나도 한국의 딸”임을 주장했다. 이것은 한국을 향한 여성들의 인정투쟁의 방향이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졌는지 잘 보여준다.

### III. 미국 다문화주의의 ‘포용’ 전략과 ‘모범적 소수자’

20세기 초 미국 이민법이 차별적인 법조문을 확정하기 이전에도 미국은 이주 여성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다. 1904년과 1910년 백인노예매매금지협약 체결 이후 미국 이민국은 의사, 종교인, 자선 활동가, 백인 페미니스트 그룹과 함께 노예 상태에 놓인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시민권 없는 이주 여성을 찾아 추방하는 정책을 폈다. 이들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성의 ‘구조’ 수단으로 추방을 선택했고, 이를 인도주의의 행위로 여겼다. 미국의 관료와 개혁가들은 백인 여성을 비자발적인 희생자로, 유색인 여성을 자발적인 매춘부로 보았는데, 특히 아시아 출신 성매매 여성이 미국 남성과 결혼해 추방을 모면하려는 것을 우려했다. 그 결과 1917년 이민법에는 미국 시민과 결혼한 성매매 여성의 시민권을 거부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그 뒤 아시아 여성처럼 귀화 자격이 없는 비백인 이주 여성에 대한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sup>45)</sup>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해외 주둔 미군이 그의 배우자와 자녀를 데리고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군과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 참전 군인이 해외 주둔지에서 여성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대부분 군부대 주변 성매매 업소나 ‘위안소’였기 때문이다. 1차 세계대전기 미 원정군(AEF: The American

<sup>45)</sup> E. Payne, “Deportation as Rescue: White Slaves, Women Reformers, and the US Bureau of Immigration”, *Journal of Women's History*, Vol.33, No.4, 2021, pp. 40-45.

Expeditionary Force) 지도부는 미군을 순박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희생자로, 주둔지 여성을 약탈적이고 음란한 여성으로 담론화했다. 미군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군사작전을 방해하는 것쯤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강력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결혼 금지정책이 미국인의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 반대자들의 도전에 부딪혀 결국 허용했다.<sup>46)</sup>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출현할 무렵, 자유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포기할 수 없었던 미국은 통합전략을 택했다. 공산주의자와 파시스트가 미국에 유입되는 것은 강력하게 막았지만, 인종주의와 문화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이민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sup>47)</sup> 앞서 언급한 전쟁신부법은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다. 전후 재통합의 차원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이 허용된 배경에는 ‘전쟁신부’의 역할론이 있었다. 정책 당국자들은 참전 군인의 귀환 후 일상 적응에 관심이 컸는데, 특히 군인 아내의 역할을 주시했다. 전장과 가정을 잇는 가교역할을 군인 아내가 해야 한다고 믿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이전에 적국이었던 독일인과 일본인 아내는 “충성스러운 미국인 아내이자 미국의 길을 지지하는 지원자”라는 정치적 의미까지 떠안았다.<sup>48)</sup>

1947년 개정 전쟁신부법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인종 제한을 처음으로 철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전후 미 원정군의 외국인 배우자 문제로 인해 이민정책을 새로 수정하고 내부 통합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은 다양한 인종의 용광로(melting pot)로 상징되는 다문화주의를 택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그것이 표방한 이상대로 모든 인종과 문화를 포용하는 관대한 정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범적 소수자(model minority)’를 내세워 이주자가 미국 사회를 위협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원래 ‘모범적 소수자’는 2차 대전 이후 사회적인 충성도가 높은 고학력 일본계 미국인을 묘사하면서 등장했는데, 점차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sup>49)</sup>

46) S. Zeiger, *Entangling Alliances: Foreign War Brides and American Soldiers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 London, New York Univ. Press, 2010, pp. 22-31.

47) R. A. Divine, *American Immigration Policy, 1924-1952*, New Haven, Yale Univ. Press, 1957, pp. 157-163.

48) S. Zeiger, op. cit., p. 129, pp. 150-158.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중산층 가정은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보루라는 정치적 은유로 기능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아시아 결혼이주여성은 아시아의 전통과 도덕을 간직한 순종적인 여성이라는 재현을 통해 과거의 ‘황색 공포’를 잠재우고 미국적 동화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sup>50)</sup> 유색인 이주자를 포용하는 냉전 민주주의 프로젝트는 제대군인 아내를 유순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이민자로 재현하며 관리가능한 주체로 만들었다.<sup>51)</sup> 한인 아내는 동양과 서양, 야만과 문명, 여성과 남성이라는 차별적 위계질서 속에 배치된 한편, 미국 부모나 남편에게 보호받으며 백인사회에 동화되는 존재로 그려졌다.<sup>52)</sup> 미국에 도착해 시부모에게 환대받는 아래 한국 여성의 사진은 미국 핵가족에 안정적으로 편입해 보살핌받는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그림 1] 미국 시애틀 항에 도착한  
한인 여성이 환대받는 모습(1)

출처: RG111-SC,  
Box no. 811(1951.10.19.)



[그림 2] 미국 시애틀 항에 도착한  
한인 여성이 환대받는 모습(2)

출처: RG111-SC,  
Box no. 811(1951.10.19.)

49) M. Nakamura, op. cit., p. 77.

50) C. Jordan, "Tracing War Bride Legislation and the Racial Construction of Asian Immigrants", *Asian American Research Journal*, Vol.1, No.1, 2021, p. 12.

51) C. C. Simpson, "'Out of an obscure place': Japanese War Brides and Cultural Pluralism in the 1950s", in *An Absent Presence: Japanese Americans in Postwar American Culture, 1945-1960*, North Carolina, Duke Univ. Press, 2001, pp. 171-185.

52) S. Woo, *Framed by War: Korean Children and Women at the Crossroads of US Empire*,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2019, pp. 16-17.

아시아 배우자를 맞은 귀환 군인의 성공적인 결혼과 중산층의 도덕적 가치에 부합하는 가정생활은 미국의 우월성과 인종적 관용을 보여주는 통합의 상징으로 기능했다. 이런 담론 지형에서 미군의 아시아 아내는 기지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이상적인 ‘모범적 소수자’가 되기를 요구받았다.<sup>53)</sup> 한 연구자의 지적처럼, 아시안 전쟁신부 담론에서 젠더는 아시아 이주민을 순종적이고 유순한 존재로 인종화하는 데에 기여했다.<sup>54)</sup>

신부학교(Brides School)는 그런 배경에서 개설되었다. 미군과 결혼한 여성을 미국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던 신부학교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었다. 냉전의 출현과 아시아에 미군 주둔이 영속화되어 ‘군 매춘부’와 ‘군인 아내’가 중첩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예민하게 인식한 군 당국의 태도에 따라 확대되거나 폐지되었다.<sup>55)</sup>

신부학교는 당시 미군의 외국 아내에 대한 기대와 규율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본의 사례는 일부 연구에서 규명되었다. 1948년 도쿄의 기독교여성협회는 미국인 여성 자원봉사자의 협조로 신부학교를 처음 열었다. 이들은 1947년 전쟁신부법 개정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 일본인 아내를 위해 영어와 요리 수업을 가르쳤다. 개정법의 한계로 일본인 아내의 미국 이주가 주춤하다가 1950년 다시 입국이 허용되자 이전보다 신부학교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후 미군이 요청해 미 적십자사(ARC)가 일본 전역에서 신부학교를 개설했다. 1957년까지 102개의 신부학교를 졸업한 여성이 3,979명이나 되었다.<sup>56)</sup> 당시 신부학교는 시민권을 얻을 수 없는 ‘인종적 부적격자’로 인식되던 일본인 아내를 ‘모범적인 소수자 신부’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sup>57)</sup>

한국에서는 일본에 비해 늦게 개설되었다. 송전기는 1957년에 자신의 주도로 신부학교를 만들었다고 했다. “미국인 아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사회의 가정 주부생활 그대료를 철저히 지도하여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한국에 오게 되어 신부학교를 개설했다는 것이다.

<sup>53)</sup> M. Nakamura, op. cit., pp. 2-8.

<sup>54)</sup> C. Jordan, op. cit., p. 14.

<sup>55)</sup> S. Zeiger, op. cit., p. 213.

<sup>56)</sup> M. Nakamura, op. cit., pp. 79-80.

<sup>57)</sup> M. Nakamura, ibid., p. 77.

그때 마침 1955년 남편이 한국으로 (USOM) 발령이 나게 되자 우리는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용산 미8군단 본부 교육센터 교실을 이야기해 놓고 차플린(군목)을 만나 나의 의도를 이야기하였다. 그 군목은 내 생각에 대찬성을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군인들의 한국 아내들이 신부학교에 입학하도록 협조하겠다고 하는 후원을 받았다. 개학하기 전 3주일 동안 신문과 라디오 방송으로 그런 내용을 발표했다. 나는 그동안 영어, 위생법, 육아, 또 가정주부로서 알아야 할 일반지식과 미국의 생활양식을 맡아 줄 각 과목의 선생들을 물색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1957년 10월 24일, 오전 10시에 신부학교(Brides School)의 문을 열게 되었다. 상상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첫날 등록을 모두 마감했다. 나는 그들이 배우겠다는 의지와 열의가 대단히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되었다.<sup>58)</sup>

초기 신부학교의 교육 기간은 4개월이었으며, 교과목을 담당한 교사는 대사관이나 원조기관 직원, 선교사, 주한미군과 그들의 아내였다. 교육 내용은 주로 미국의 문화와 미국식 가정생활에 관련된 것이었다. 졸업식과 특별 수업에서 미8군 총사령관이나 주한 미대사관의 부인이 했던 발언은 당시 신부학교의 지향을 잘 보여준다.

당신들이 할 일은 배움의 길이다. 그리고 언제나 당신의 나라를 잊지 말고 사랑하며 좋은 한국의 이미지를 심으며 훌륭한 아내와 어머니가 되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더 무거운 책임은 당신들 남편들이 성공적인 출세를 위한 뒷받침을 하는 훌륭한 아내가 되어 주는 것이다.<sup>59)</sup>

당신들은 한국의 좋은 대사가 되어야 하겠다. 미국이나 기타 외국에서 살게 되면 당신 한 사람이라는 개인 입장을 떠나서 전체 한국 여성들의 대표가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책임이 대단히 중요하고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당신들의 유일하고 특별한 입장을 잘 이용하여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교류와 민간 외교에 활발히 참여하는 훌륭한 코리안 아메리칸이 되어주기 바란다.<sup>60)</sup>

58) 송전기, 앞의 책, 23-24쪽.

59) 송전기, 위의 책, 24쪽.

60) 송전기, 위의 책, 24쪽.

한국 민족주의가 미군과 결혼한 여성을 ‘민족의 수치’로 여기며 노골적으로 배제했던 것과 달리, 신부학교에서는 미국의 다문화주의가 ‘포용’하는 범위에서 “좋은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며 “훌륭한 코리안 아메리칸”이 되라고 주문했다. 한국을 잊으라고 하기는커녕 “전체 한국 여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훌륭한 아내와 어머니”가 되라고 했다. 이런 태도는 1964년 『Korea Times』의 ‘한국 여성과 결혼한 미국인에게 주는 조언’이라는 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거기에서는 ‘신부를 미국에 데리고 오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 힌트’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신부는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읽고 쓸 수 있을 만큼 배워야 한다.” “신부의 한국 의상을 가져오도록 해라.” “한국 예술품, 옷칠이나 돗쇠, 또는 어떤 전형적인 한국 물건을 가져오도록 해라” 등이었다.<sup>61)</sup> 이처럼 당시 다문화 담론에서 국제결혼여성에게 요구했던 것은 한국의 문화 전통과 그것이 떠올리는 순종적인 이미지였다. 이런 소수자 모델은 미국의 다문화주의가 ‘포용’하고 ‘관용’하는 범위 안에서 미군의 아asian 아내가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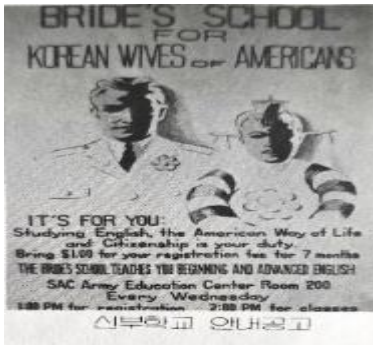
신부학교의 전모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시기나 지역 사정에 따라 운영 주체의 변화를 겪으며 1990년대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전기는 1959년 4월 남편의 전근으로 서울을 떠나게 되어 미 적십자사에 운영을 맡겼다고 했는데,<sup>62)</sup> 한동안 적십자사가 운영하다가 1970년대 이후에는 미 위문협회(USO)<sup>63)</sup>가 그 업무를 떠맡았다.<sup>64)</sup>

61) “Advise for Girls Married to Americans: Adjust to U.S. Way of Life”, *Korea Times*, 1964; 송전기, 위의 책, 26쪽.

62) 송전기, 위의 책, 25쪽.

63) 전시 미 위문협회의 활동은 주로 여성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감동노동과 돌봄이라는 여성적 이상을 기초로 좋은 아내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었다.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에게 고향의 감각을 선사하는 것, 군인들이 성매매 업소나 술집을 대신해서 USO 클럽을 찾도록 장려해 그들을 도덕적 길로 인도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었다. P. Chappine, ““Doing Their Bit” : The USO in New Jersey During World War II”, *NJ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Winter 2021, pp. 1-9.

64) 1990년대 USO가 운영한 신부학교의 교육 장면은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참조(고재성, Brides School 3-4, 1990, 관리번호: DSD0000237, DSD0000238).



[그림 3] 신부학교 공고문  
출처: 송전기, 『나도 한국의 딸』



[그림 4] 송전기의 모습  
출처: 송전기, 『나도 한국의 딸』



[그림 5] 신부학교의 모습  
출처: 『조선일보』, 1964. 9. 26.



[그림 6] 신부학교의 실습 장면  
출처: 『동아일보』, 1972. 2. 17.

미군의 한국/아시안 아내에게 요구되었던 좋은 아내와 어머니 모델은 문자 그대로 가정 살림을 잘하는 여성일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은 여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했다. 미국에서 전쟁신부 담론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가운데 하나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군 기지촌 출신의 아시안 아내가 급증했다는 사실이다.<sup>65)</sup> 이에 더해, 70년대 이후 주한미군 감축으로

<sup>65)</sup> S. Zeiger, op. cit., pp. 204-205.

불경기를 맞게 된 기지촌 업주와 여성들이 브로커를 통해 대거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미국 내 기지 주변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게 알려져 부정적인 인식이 극에 달했다.<sup>66)</sup> 이에 미군의 한국인 아내의 위장결혼과 불법 성매매를 막아야 한다는 원색적인 비난 보도가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sup>67)</sup> 1983년에는 미국 방송사에서 이 문제를 심층 취재해 보도하면서 한국 외교부까지 나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문제화되기도 했다.<sup>68)</sup>

재미 국제결혼여성들의 인정투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그 하나는 전후 다문화주의 통합 전략 아래 강조된 ‘모범적 소수자 신부’라는 규범이고, 다른 하나는 아시아의 기지촌 문제가 미국 본토로 연쇄 파급되어 부풀려진 ‘부도덕함’의 그림자이다.

#### IV. 국제결혼여성의 단체 결성과 활동:

##### ‘한미부인’에서 ‘국제결혼여성’으로

2005년 10월 서울에서 제1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The 1st World Convention of the Korean-Intermarried Women)가 개최되었다. 대회에서 국제결혼여성들은 최초로 통합된 국제 조직으로서 한국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왜곡된 인식을 타파하려는 메시지를 전했다. 전 세계 12개국에 흩어져 사는 국제결혼여성들을 한데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재미 국제결혼여성들의 오랜 활동과 인정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미 한인 국제결혼여성 단체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66) 유리 둘란, 앞의 논문.

67) W. J. Bartman, “Korean War Brides, Prostitutes And Yellow Slavery”, *Minerva*, VII-2, 1989.

68) 외무부 영사국 재외국민과, 「미국 ABC-TV의 국제결혼 한국여성 문제 방영 사건」, 1983(관리번호: CA0362660).

〈표 2〉 재미 한인 국제결혼여성 단체와 조직 변화

| 단체명                                                                                       | 설립 연도          | 구성원                              | 회장               | 설립 취지와 활동                                                          | 비고                                                             |
|-------------------------------------------------------------------------------------------|----------------|----------------------------------|------------------|--------------------------------------------------------------------|----------------------------------------------------------------|
| 한미부인회<br>Korean American<br>Wive's Association                                            | 1963           | 송전기<br>외 6명                      | 송전기              | 회원 친목, 한인 국제결혼<br>여성 지원, 지역사회 봉사                                   |                                                                |
| 대한부인회<br>Korean Women's<br>Association                                                    | 1972           | 김예자<br>외 5명                      | 김예자              | 회원 친목, 통역 지원                                                       |                                                                |
| 워싱턴 여성회<br>Korean American<br>Wives Club of<br>Washington                                 | 1982           | 구 한미<br>부인회                      | 고수영              | 문화와 장학사업을 목표<br>로 출발, 한국 혼혈학생과<br>미국 고등학생에 장학금<br>제공               | 한미부인회에서<br>분리, 독립                                              |
| 한미여성회<br>(한미여성재단)<br>The Organization of<br>Korean American<br>Women(OKAW)                | 1984           | 구 한미<br>부인회                      | 말희<br>왈라스        | 혼혈인 이민 초청, 전화상<br>담, 가정폭력 피해여성 쉼<br>터 제공, 이혼 여성 지원,<br>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 비영리단체로 등<br>록                                                  |
| 이중문화가정목회<br>전국연합회(이가전)<br>National Association of<br>Inter-Cultural Family<br>Mission     | 1988           | 감리교<br>목회자,<br>감리교<br>신도         | 김원호,<br>김민지<br>등 | 국제결혼여성을 돕고 선<br>교할 목적으로 결성                                         |                                                                |
| 뉴욕 무지개의 집<br>Rainbow House                                                                | 1993           | 백상순,<br>김혜선,<br>박정순,<br>방은숙      | 여금현<br>목사        | 국제결혼여성과 한인이주<br>여성에 쉼터 제공, 사회<br>적응지원과 여성권익옹호<br>활동                |                                                                |
| 국제결혼가정선교<br>전국연합회(국제선)<br>National Association of<br>Inter-Cultural Family<br>Mission     | 2004           | 여금현,<br>김민지<br>평신도<br>대표         | 김민지              | 토지를 매입해 국제결혼<br>여성 삶의 터전(평화마을)<br>조성                               | 감리교 한인남자<br>목사단체에서 독<br>립해 초교과 평<br>신도 국제결혼여<br>성의 선교단체로<br>분리 |
| 한미여성회<br>미주연합회<br>Korean-American<br>Women's Association of<br>the USA(KAWA-USA)          | 2004.<br>6.23. | 송전기,<br>윤영실,<br>준윤,<br>정나오미<br>등 | 윤영실              | 여성인권옹호운동, 한국문<br>화알리기. 혼혈인차별금지<br>운동 등                             |                                                                |
| 미주국제결혼여성<br>단체연합<br>Union of the Korean<br>Inter-Cultural Married<br>Women's Organization | 2004.<br>10.   | 서진옥<br>무지개집<br>대표                | 여금현              |                                                                    | 재외동포재단 후<br>원으로 10월 세<br>계 국제결혼여성<br>서울대회로 발전                  |

| 단체명                                                                       | 설립<br>연도     | 구성원                     | 회장  | 설립 취지와 활동                                    | 비고 |
|---------------------------------------------------------------------------|--------------|-------------------------|-----|----------------------------------------------|----|
| 월드킴와<br>World-Federation of<br>Korea Inter-Married<br>Women's Association | 2006.<br>10. | 윤영실,<br>준운,<br>이영남<br>등 | 김예자 | 세계 국제결혼여성 네트워크<br>형성, 국제결혼여성의<br>이중문화 정체성 확립 |    |

출처: 월드킴와 편, 제15회 World-KIMWA 세계대회 자료집, 2019, 90-91쪽;  
국제결혼가정선교회 편, 국제결혼가정 선교전국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  
수련회 자료집, 2019, 16-19쪽; 정나오미, 「미국국제결혼 한인 여성들의  
삶과 역사」, 『미주 한인회, 동포 사회의 발전과 도전』(미간행 원고).

미국에서 최초로 결성한 국제결혼여성 단체는 한미부인회다. 1963년 7월 7일 워싱턴 디씨에서 한인 여성 7명이 모여 국제결혼여성 모임을 조직했다. 이 지역은 펜타곤을 비롯해 10여 개의 미군 부대가 밀집해 있어 미군과 결혼한 여성들이 군부대를 연결고리 삼아 서로 만날 수 있었다. 1962년 워싱턴에 정착한 송전기는 모임의 결성을 주도했고, 그 뒤 시카고를 비롯하여 6 곳에서도 지역 한미부인회가 만들어졌다.

한미부인회의 초기 활동은 주로 친목과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송전기는 설립 목적으로 “배움의 길”을 첫째로 꼽았다. 그 가운데에서 “미국 가정주부로서 알고 지켜야 할 점”을 지도하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 이는 신부학교의 그것과 비슷했다.

나는 이 여성들을 위해 친구나 언니, 동생 또는 친정이 되어 줄 수 있는 여성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심각하게 실감했다. 그래서 1963년 ‘한미부인회’(Korean-American Wives Club)를 미국에서 처음으로 조직하게 되었다. 이 클럽의 첫째 목적은 배움의 길이었다. 매월 월례회의를 갖고 여러 분야의 연사들을 초청하여 미국 가정주부로서 알고 지켜야 할 점을 지도해야 했다. 그 회의 활동은 우선 친목, 직업 알선, 영어 공부, 가정주부의 주권과 가정상담 등이었다.<sup>69)</sup>

<sup>69)</sup> 송전기, 앞의 책, 36쪽.



[그림 7] 1963년 한미부인회 모임  
출처: 한미여성회 미주연합회, 2019년  
자료집



[그림 8] 1960년대 한미부인회 모임  
출처: 옥순희 소장

친목은 모임이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한국 사람을 만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만나 한국말로 대화하고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되었다. 1952년에 미국으로 이주한 옥순희는 한미부인회의 초창기 회원이었다.

여기는 군인 가족들이 많잖아요. 군인 가족들이 많아서 한국 여자들이 많았다고, 부인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애드버타이징(advertising: 광고)을 해 가지고, 미세스 에드워드(송전기)가 부대에 들어가 가지고, 그거 팸플릿을 만들었어. 그래가 자꾸 모여 가지고. 큰 집 가진 사람 거기서 미팅하고. 미팅보다가[미팅보다] 다 반갑고 밥 먹는 거지, 반찬 해서, 이 사람 뭐 해오고 뭐 해오고 김치하고. 아, 너무너무 막 반갑고 좋고 그랬다고, 그때는. <옥순희>

가족 단위 한국 이민자 수가 증가하기 전까지 미국 동부 지역사회에서 한국인이나 아시아 사람을 만나는 일이 드물었다. 옥순희는 남편이나 시집 식구 외에 교류하는 이웃이 없어 늘 외로웠다. 간혹 유학생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에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으나 대부분 일회적인 만남으로 그쳤다. 고심 끝에 남편이 같은 부대 동료의 한국인 아내를 소개해주었다. 옥순희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생활의 활력을 되찾았

다. 이처럼 고립감과 외로움은 모임을 설립하게 된 중요한 이유였다.

한미부인회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지역사회 봉사다. 초기 활동이 친목과 교육이 중심이었다면, 70~80대에는 한인 이주민 지원, 양로원과 소년원 지원, 한국전쟁 참전군인 지원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혔다.<sup>70)</sup> 회원들은 거주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하고 기부활동을 이어갔다. 미용사였던 옥순희는 짬을 내서 머리 자르는 봉사를 하거나 헌 옷을 세탁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처음에는 한미부인회 없이 우리가 만났잖아. [그 뒤에] 한미부인회 타이틀로 만나 가지고. 양로원에도 가고. 그때만 해도 참, 미국에도 못 사는 사람이 많았다고요. 헌 옷 씻어 가지고 다 꿰매서 갖다주고. 그랬어요, 우리. 초창기엔 우리 그랬어. 헌 옷 같은 거 다 씻어 가지고 버튼(단추) 다 달고 이래 가지고 갖다줬어. 갖다주고 양로원에 가 가지고 할머니들 머리도 깎아주고. <옥순희>

송전기는 “클럽 회원들이 내세울 만한 특이한 점은 항상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발 벗고 나서는 희생정신이 강한 모범적인 여성들”<sup>71)</sup>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미부인회는 미국식 가정생활 교육이나 단순 친목을 넘어 ‘모범적인’ 이주 여성으로서 역할을 중시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국제결혼여성을 돕는 활동 역시 미국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빈곤한 이주 여성의 정착을 지원하는 게 결국 미국 정부의 복지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의 안정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결혼이라는 공통의 경험이 있었기에 여성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다.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당하거나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면 통역을 담당하고 갈등을 중재하거나 법률 전문가를 연결해 주었다. 사비를 들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제결혼여성을 지원하기도 했다. 옥순희는 군부대를 매개로 직접 어려운 여성을 찾고 남편을 만나 해결에 나섰다고 했다.

70) 정나오미, 『미주국제결혼 한인 여성들의 삶과 역사』, 『미주 한인회, 동포 사회의 발전과 도전』, 미주 한인회 서북미연합회(미간행 원고).

71) 송전기, 위의 책, 39쪽.

그런 걸 도와주는 우리 재단이니까. 우리 한미부인이니까. 그런 거 부대 안에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가 찾으러 가서 남편 만나고. 젊은 애[군인]들이 말이지, 부인 데리고 와 가지고, 아주 학대하는 애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 부대 안에 가 가지고 군인 변호사, 로이어(lawyer: 변호사)도 만나 가지고 얘기도 해 가지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가 가지고 도와주고. 옛날에는, 50년도는 많았어요. <옥순희>

1984년 한미부인회는 한미여성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영리 법인으로 연방정부에 등록했다. 각 주에서 한미여성회를 발족하고 활동 규모를 확장했다. 친목 단체의 성격을 뛰어넘어 명실공히 비영리 봉사단체로 성격을 명확히 한 것이다. 2004년에는 한미여성회 미주연합회를 창립하여 각 지역의 여성회를 통합하고 국제결혼여성 네트워크의 토대를 마련했다. 소규모로 일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을 극복하고 불우여성을 위한 핫라인 개설, 가족 폭력 피해 여성 상담소 운영과 보호소 마련, 혼혈인 이민 정착 사업 지원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sup>72)</sup> 여성들은 대부분 자신이 애써 일하고 번 돈으로 기부금을 내고 봉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또 어려운 여성에게 생활비를 보조하거나 잠시 기거할 곳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 정부와 연계해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상담소와 그 쉼터(shelter: 보호소), 그거를 제가 [한미여성회] 회장 할 때 설립을 하게 됐어요. ‘희망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트레일러 같은 거, 임시로 쓸 수 있는 곳. 꼭 가정폭력뿐만이 아니라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들이 페이(pay: 월급) 직원이 있었고, 사무장이 있어서 이제 직접 할 정도로. (...) 그 ‘희망의 집’이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기금 모금을 계속해서 이렇게 돕고 하기는 하지만은. 정부에서도 그런, 이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해주는 거를 또 이제 미국 정부하고 연결해서 집까지 하나 마련해줄 수 있는 거. 2년 텀(term: 기간)이지만, 우리가 못 해주는 거를 정부랑 연결해 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신민애>

72) 한미여성회 미주연합회, 15th Anniversary Celebration and 9th Leadership Conference 자료집, 2019.

국제결혼여성 단체의 변천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한미부인’에서 ‘국제결혼여성’으로 명칭 변화이다. 여성들은 ‘한미’가 ‘부인’과 연결되었을 때 연상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고 세계 각지의 국제결혼여성으로 초국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것은 인정정치에서 여성들의 입과 위먼트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재미 국제결혼여성 단체는 중요한 경험의 장으로서, 정의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인정정치를 학습하는 장소였다. 이주 여성에게 이주지는 차별과 억압이 가시화된 공간이지만 여성들이 어떤 활동을 기획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초국적 장소는 네트워크 형성과 정서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고, 그를 통해 초국적 상상력과 정체성 협상에 영향을 미친다.<sup>73)</sup> 낯선 땅에서 서로 만나 한국 음식을 해 먹고 한국말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으로서 국제결혼여성 단체는 그 자체로 초국적 장소이자 트랜스로컬리티의 체험장이었다. 이는 초국적 여성연대와 인정투쟁을 실현할 수 있는 귀중한 토대였다.

## V. 국제결혼여성의 다방향적 인정투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민족주의적 배제와 미국의 다문화주의적 ‘포용’ 전략은 국제결혼여성을 “무시와 신분 종속”으로 몰아넣은 사회적 관행과 담론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국제결혼여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인정투쟁을 벌였을까. 이 장에서는 부정의한 현실을 뚫고 인정의 목소리를 높여온 여성들의 노력이 다방향으로 전개되었음에 주목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국제결혼여성의 인정투쟁은 “나도 한국의 딸”이 보여주듯 성원권 주장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민족의 테두리 밖으로 여성들을 밀어냈던 배제와 박탈에 대한 저항이다. 또 이것은 국가의 인정 규범을 내면화한 것이기도 하다. “나도 한국의 딸”임을 주장하는 근거는 “국가발전에 큰 몫”<sup>74)</sup>을

73) 정현주, 『이주 여성들의 공간 이야기』, 『디아스포라 지형학』, 엘피, 2016, 86-87쪽.

74) 송전기, 앞의 책, 146쪽.

담당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로 표상되는 ‘조국’의 발전에 공헌한 ‘딸’이라는 수사는 국가의 재외동포 인정체제와 무관하지 않다.

흥미로운 점은 탈냉전과 세계화로 재외동포법이 제정되고 그 범주가 만 들어지는 과정에서 국제결혼여성의 인정투쟁 방향이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 초 재외동포재단이 국제결혼여성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여성들은 미약하나마 조국의 인정체제에 편입되었다. 그 뒤 인정투쟁의 방향은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한국 정부를 향했다. 2005년 제1회 국제결혼여성 세계대회와 2006년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월드킴와)가 발족하고 난 뒤부터 각종 연설과 글에 민족/국가의 서사가 강조되었다. 월드킴와의 탄생 배경을 설명하는 글에는 이런 면이 잘 드러난다.

이 세계대회를 두 국제결혼한인 여성들의 단체가 주최할 수 있게 된 동기는, 2004년 3월 미국 무지개집의 사회교육부에서 주최한 모국방문 수련회에 참가했던 5개국에 흩어져 활동하고 있던 36명의 국제결혼한인 여성들이 재외동포재단 이광규 이사장님의 강의와 강연을 통해 국제결혼여성들이야말로 한민족의 후예가 되어 거주국에 한류전파와 한국문화정착에 민간대사 역할로 모국의 국위선양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자각하고, 지속적으로 한류정착에 가장 효율적인 문화전령사와 민간대사로 봉사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어 국제결혼여성들끼리 뭉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단체조직을 꾸리고 준비하면서부터였습니다.<sup>75)</sup>

금년 2019년은 대한민국의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따라서 ‘제15회 국제결혼여성세계대회’가 ‘희상하기’라는 테마로 2019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개최되는 금번 대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유관순 열사의 나라사랑과 우리 월드킴와가 지향하고 있는 여성의 주체 의식을 재조명할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의미심장한 해이기 때문이다.<sup>76)</sup>

둘째, 국제결혼여성의 인정투쟁은 재미 한인사회에서 받은 차별과 모욕에 저항하는 성격이 짙다. 한인들의 노골적인 멸시와 무시로 여성들은 힘든 일

75) 월드킴와 편, 제15회 World-KIMWA 세계대회 자료집, 2019.10.9, 3쪽.

76) 정나오미, 「기억하고 도약하며: 정나오미의 기억하기」, 월드킴와 편, 위의 자료집, 88쪽.

을 많이 겪었다. 구술자들은 미국 사람에게 받은 인종 차별보다 한인에게 받은 모욕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다. 강은주와 민희경은 초기에 이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국제결혼여성이 초청해서 오게 된 가족인데도 자신들을 차별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보면은 국제결혼 한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데려온 사람들[가족초청으로 이민 온 한인들]이 많아요. 그냥 이민 와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 1960년이나 70[년]이나 국제결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가족을] 데려와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도 국제결혼 한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사람이 많아요. <강은주>

한국 교회를 가도, 저희 남편이 미국 사람이라 그러면 다시 저를 이상하게 보는 그제 저를 너무 불행하게 했어요.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로]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가족 초청을 해서 한인, 그 뉴저지니까 더군다나 뉴욕 바로 가까워서 한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면 처음에는 이렇게 잘하다가 나중에 새로운 사람 신상카드 해서 그걸[신상정보 작성] 하면은 꼭 그렇게 세컨드(second: 이류 취급), 그런 걸 하더라고요. <민희경>

국제결혼여성들이 딱한 처지에 놓인 국제결혼여성이나 한인 이주 여성을 외면하지 않고 도왔던 것은 자신들을 차별하는 재미 한인사회를 향한 외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봉사활동은 지역 한인 공동체에 기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주미한국대사관조차 미군 아내나 한인 이주 여성이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국제결혼여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물론, 아래 옥순희의 구술처럼, 대사관 직원 중 일부는 “국제결혼한 애들이니까”라며 여성들을 무시하고 ‘골치 아픈’ 사건의 처리를 떠맡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굵은일을 처리해 한국과 한인사회의 부정적인 편견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의 인정 욕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옛날에는 무슨 그런 일이 있으면 다 대사관에 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연락 온다고. 내한테 연락왔다고. (면담자: 대사관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도움을 주나요? 한미부인회는 민간단체인데, 대사관이 직접 도움을 주는 거는 어떤 [게 있었어요?]) 없어

요. So far I don't know(지금까지 내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우리달에만[우리들에게만] 밀어버리지. 우리는 그런가보다 그  
 러지. 국제결혼 한 애들이니까. <옥순희>

셋째, 국제결혼여성의 인정투쟁은 미국 사회를 향한 정의 실현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희생정신이 강한 모범적인 여성들”<sup>77)</sup>로 자신들을 재현하며 미국의 인정체계에 응수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후 미국의 다문화주의는 선택적 포용 전략으로 통합정책을 폈고, 그 과정에서 아시안 아내의 ‘미국 시민 되기’ 규범이었던 ‘모범적 소수자’ 담론이 강조되었다. 이에 국제결혼여성들은 출선수범해서 봉사과 기부활동을 통해 미국의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자 했다.

하지만 단지 국제결혼여성들의 활동을 모범 시민 규범을 내면화한 것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그것은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거부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국제결혼여성들은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뿐 아니라 미군의 아시안 아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차별을 경험했다. 그로 인한 수치심과 모멸감은 여성들이 자신의 사회적 신분 종속을 일상적으로 깨닫게 되는 계기였다. 김영화는 지역 주민과 시집 식구에게 인종과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당한 일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모욕당한 순간 참지 않고 항의했다. 모멸감을 주는 시어머니에게 “나 배깁에서 마구 돌아 먹던 여자 아니야”라며 맞대응했다.

첫째로는, 힘들은 거는 인종차별. 배깁[바깥]에 나가면은 이렇게 그냥 이래 걸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오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고 가는 게 아니야. [고개를 뒤로 돌리며] 목이 빠지게 돌리면서 치다 봐[쳐다봐]. **그때 당시에는 꼭 원숭이 보는 거 [같았어].** 그래 보면은 나는 그냥 못 지나가. 내 성질에. “뭘 보냐?” 내가. “내가 코가 두 개가 붙었냐, 눈이 네 개가 붙었냐. 뭘 보냐?” 내가. 그러면은 얼른 고개를 돌리고 가버려. 하하.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못 되게 사람을 만들더라꼬.** <김영화> (강조 - 인용자)

[시어머니가] 한국에 뭐 저기, “TV가 있냐?”, “냉장고가 있냐?”, “전깃불이 있냐?” 뭐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물어봤다고. 그러고는 나

77) 송진기, 위의 책, 39쪽.

가 시장 가 갖고 뭘 사면은 “그 새 거 사지 마라, 헛 거 사라.” 그런다고. “왜 헛 거를 사?” 내가 그러면은, “**헛 거도, [it] could be enough for you(너한테는 충분할 거야).**” 그러니 얼마나 무시해서 그런 소리를 하노. <김영화> (강조 - 인용자)

내[나] 무시하는 거는 좋아. 애들까지 무시하는 거야.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우리 시누이 아들은 12볼짜리 선물을 사다 주고, 우리 아들은 75전[75센트]짜리 사 가지고 왔더라고. 1볼도 안 되는 돈. (...)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니[시아머니] 생각에는 저거지만은 [하찮아 보이겠지만] 나, 처녀로서 일곱 달 반짜리 너그 아들한테 시집왔어. 나 배깁[바깥]에서 마구 돌아 먹던 여자 아니야.” 내가. 그리고 “사람 그렇게 무시하지 마라. 내 무시하는 건 또 좋지만, 내 애까지. 왜 인종차별 왜 하노?” <김영화> (강조 - 인용자)

신민애는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이주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선생님에게 꽃을 선물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본 같은 반 미국인 친구가 아들을 공격하며 엄마가 미국 사람과 결혼했다는 걸 거론했다. 상대를 비난하려는 의도에서 국제결혼을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것이다. 이는 아시아/한국 여성과 미군/미국인 남성의 결혼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랬더니 [아들의 미국인 친구가] 싸우면서 “니네 엄마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잖아!” 그런, 애들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니까는 엄마, 아버지들이 어떻게 말을 했길래 애들까지 저런 말이 나올까? 응? “니네 엄마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잖아” 이런 말이 나오는 게. (...) 나는 꽃집을 하니까 예쁘게 해서 갔다 왔는데,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질투를 하고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걸 듣고, 참 맘이 아팠어요. 그리고 [아들은] 내가 학교 오는 걸 싫어했어요. 그다음부터. 안 갔죠, 그냥. 남편 보내고. <신민애> (강조 - 인용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여성들의 인정투쟁의 일환이자 부정의를 시정하려는 노력이었다. 신민애는 국제결혼여성 단체의 활동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카운티: County) 여성부 여성위원회의 자문을 맡았다. 지역 문제에 직접 나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상담하거나 정책 담당자에게 조언하는 등 해결사 역할을 자임했다.

백인, 흑인, 아시안, 그니까는 꼭 미국 사람만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슈퍼바이저들(supervisor: 카운티 감독관)이 추천을 해 가지고, 멤버가 한 17명 정도 됐었어요. (…)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했어요. 미팅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가정폭력 여성들을 도와주는, 그 쉼터(shelter: 보호소)며, 잡(job: 직업)도 찾아주고 애들 학교도 보내주고, 또 집도 마련해줘요.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했죠. (…)  
[한번은] 한인 여성이 이혼을 당하고 쉼터 2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보내준 직업학교를 다녀서, [나중에] 자리를 해서 아주 잘 살지는 못 하지만 그냥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국제결혼여성들은 일상적인 차별과 아시아 이주 여성에 대한 사회 문화적 재현체계에 도전하며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가치를 재형성했다. “모범적인 여성”이라는 자기 재현은 한편으로 미국의 인정체계에 편입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을 새로 구축할 필요에서 나온 전략이기도 했다.

넷째, 국제결혼여성들은 여성들 내부의 차이를 인정하며, 그런 인정의 방향으로 서로 연대했다.<sup>78)</sup> 물론 모임 구성원들 사이에서 차이로 인한 갈등이 없지는 않았다. 결혼해서 미국에 오게 된 사정과 배경이 다르고, 미국에 정착한 뒤에도 경제 수준이나 삶의 방식이 상이해서 때로 그것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그 자기가 겪었고 왔던 그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그런 습성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습성을 완전히 버리고, 그쵸? 어떤 사람은 누구 소개로 그냥 결혼해서 이렇게 왔어.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다가 이렇게 왔어. 이제 그렇게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사귀다 보면 그래도 좀 한국에서 공부도 했고 그런 분들은 틀려요. 근데 전혀 공부도 없고 그 겪었고 왔던 과정도 틀리고. 그런 사람은 진짜 가까이하면은 내

78) 약셀 호네트는 연대를 사회적 인정 형태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근대사회에서 “사회적 연대는 개성화된 주체들 사이의 대등한 가치 부여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관계의 전제”이다. 이것이 ‘연대적’인 이유는 이 관계가 타인의 특수성에 대한 수동적 관용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목표나 가치 실현을 위해 타인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과 같은 정서적 관심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약셀 호네트 저, 문성훈·이현채 역,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사월의 책, 2011, 247-249쪽.

가 너무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더라고. <홍자영>

한미여성회에서는 자기 과거사를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그려진 않  
지. 근데 이제 벌써 뭐 어떨다, 어떨다 하면 소문들이 돌아 가지고.  
그리고 특히 여기 와서 나이도 있고 가정을 가지고 사는데도 딴 주  
에 가서, 그 나쁜 일을 하다가 오고 이러나 봐. <홍자영>

하지만 부정적인 소문의 주인공을 대하는 방식이 모두 같았던 것은 아니  
다. 기지춘 성매매 경험이 있거나 그와 유사한 업종에서 일했던 여성들은  
그런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실제 전력과 상관없이 이들은 모두 미주 한인사회나 미국 사회에  
서 같은 부류로 취급받아 왔다는 사실이다. 수치심과 모욕이라는 공통 경험  
과 정동은 여성들을 하나로 연결했다. 이런 이유로, 모임이나 지역에서 만나  
는 국제결혼여성들의 전력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여성들이 많았다. 옥순희  
는 아예 그런 문제는 안중에 없었으며 그저 한국 여성을 만나는 게 기뻐다  
고 했다. 미국에 도착해 외로웠던 이인숙은 술집에서 만난 국제결혼여성을  
멀리하지 않고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나눠 먹고 아이들을 돌봐주었다.

초창기에, 모임에. 너무 반갑는 거 그 외에는 [없지]. **니가 옛날  
에 뭐 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반가워, 다 막 반가운 거야.**  
너무 사람을 못 만나봤으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외로웠으니까 막 너  
무 반가운 거야. 그리고 한국 음식, 김치 그런 것 먹는 것도 너무  
좋고. <옥순희> (강조 - 인용자)

내가 맨날 한국이 그림고 눈물 나잖아요. 이 사람[남편]이 하루는  
날 보고 “옷 입고 우리 나가자” 이래. “어디 가냐?”니까 가제. 그래  
술집을 데려가는 거야. “미쳤나, 여기를 왜 오느냐?”고 그랬더니 괜  
찮대. 그래 술집에를 떠 갔더니 여자들이 빨가벗고 무대에서 한국  
여자들이 춤추고. (...) 그래 나는 기가 팍 죽고 무섭잖아요. 그랬는  
데 누가 이려고 살랑살랑 오더니 술을 시켜. 이 사람은 이제 술을  
시키고 앉아가 있더니 날 보고 “어디, 한국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  
야. 그 소리에 나는 막 눈물이 나. [고개를 끄덕이고 우는 시늉을  
하며] “으어어어” 막 이랬어.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왔는가 봐. 처  
음이여?”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네, 이제 온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리고 막 울었어, 반가워 가지고. 막 울고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우리 집에 놀러를 오래. 우리 집은 신랑도 없고, 남편이 월남 가고 지금 없다는 거야. 남편이 월남 가서 돈을 안 부쳐주니까 술집에서, 애들 셋 데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술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집을 갔는데, **김치찌개를 하고 부침개를 부치고 밥을 해서 주는데 맵고, 눈물인지 콧물인지 맵고 막, 그렇게 울면서 그 집에서 밥을 그렇게 얻어먹고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이인숙> (강조 - 인용자)

여성들은 자신들이 모두 혐오의 대상이 되고 같은 부류로 취급받았던 공통의 경험에 기초하여 연대했다. ‘한미부인’에서 ‘국제결혼여성’으로 정체성을 재규정하며 국제결혼이라는 연결고리를 연대의 접점으로 삼았다. ‘국제결혼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상호인정하는 행위이며 자신들을 초국적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결혼 전에 기지촌에 있었던 아니든, 남편이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학력이 높은 낮은, 이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했다. 국제결혼여성 단체의 결성과 명명은 그 자체로 인정투쟁의 성격이 강하다. 내부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며 상호인정하는 기초 위에 형성된 연대 행위는 인정정치가 “주체 중심적 가정을 수반”<sup>79)</sup>한다는 우려를 불식하기에 충분하다.

다섯째, 국제결혼여성들의 인정정치가 일국적인 경계 내에서만 작동해왔던 것은 아니다. 여성들은 ‘부도덕함’의 이미지와 선을 긋기 위해 ‘기지촌의 그늘’을 외면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한국에 사는 결혼 이주 여성과 그 아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했다. 또 생계가 어려운 기지촌 여성 노인을 지원하고 직접 미국으로 초청해 숙식을 제공했다. 이런 활동이 기지촌을 연상시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봐도 나는 당당하다”(장미정)고 했다.

한국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당신네들 사회가 다문화가 되어간다. 우리가 가슴 아프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픔을] 다 극복을 했으니까 우리를 ‘대한의 딸’로 인정을 해달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당신네들이 못하는 거를 더 앞장을 서서 해주겠다.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친정을 살

79) 낸시 프레이저·악셀 호네프 저, 앞의 책, 29쪽.

리고 조국을 살린 그 경험으로 인해서 당신네들이 못하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그 정체성에 불안해하는 그 아이들, 내가 내 자식 겪으면서 겪었던 그걸로, [돕겠다] <민희경>

그분들이[기지촌 여성들] 오갈 데가 없어서 그 평택에 조그만 한 방 한 칸에서,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택에 가서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일본 위안부 그분들은 그래도 나라에서 위해주고. 저, 거기도[일본군위안부 지원활동] 활동했었어요. (…)** 정말 미군 그 위안부 그분들은 너무너무 불쌍하게 처절하게. 그분들이 너무 비참하게 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그때 3천 불을 우리 재단[한미여성재단]에서 일일 찻집에서 모은 돈 전달하고. 그 다음 해에 그분들이 미국으로 오셔서 제가 저희 집에서 다섯 분을 재웠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말이 자기가 태어나서 천국에 왔다가 가는 기분이라고. 저보고 고맙다고, 이 좋은 침대에서, 이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에 해줘서 간다는 그런 마음이, 제가 그 여운이 있어요. <장미경> (강조 - 인용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한미여성재단이 그렇게 기지촌 여자들이 모여서 저질스러운 데가 아니고 우리도 인간으로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고 여성으로서 여기 열심히 일을 한다. 제가 한국 갔을 때 다문화 가정에 제가 도와줬어요. 그 한국 남편의 스리랑카라던가 월남, 그 가난한 나라들, 필리핀 여성들이 결혼해서 한 이주 그 단체에 제가 인형도 사주고. (…)**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단체에 저희들이 돕고. <장미경> (강조 - 인용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결혼여성들은 한국과 미국의 인정체계에 편입되어 인정투쟁을 벌였지만, 그것에만 매몰되지 않았다. 여성들은 ‘한미부인’에서 ‘국제결혼여성’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규정했다. ‘한미’가 ‘부인’과 연계되었을 때 따라붙었던 혐오를 거둬내면서 ‘국제결혼여성’이라는 용어를 통해 내부의 차이를 연대로 뛰어넘으며 초국적 존재로 자신들을 자리매김했다. 여성들은 서로 다른 문화권을 결혼으로 횡단한 사이의 존재들(inter-married)이다. 그들은 “인 비트위너(in-betweeners)”<sup>80)</sup>로서 초국적 활동을 이

80) 김진경, 「모든 여성의 차별과 편견을 지양하는 In-Betweeners: Comfort and Challenge」, 월드킴와 편, 위의 자료집, 32-33쪽.

어왔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국제결혼여성의 연대, 한국의 이주 여성과 연대, 기지촌 여성과 연대, 일본군‘위안부’ 활동과 연대 등은 기존의 미주 한인사회의 활동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이런 인정투쟁은 새로운 정의를 실현하려는 윤리적인 행위이다.

## VI. 맺음말

재미 국제결혼여성들의 인정투쟁은 민족주의적 배제와 다문화주의의 선택적 포용 사이에서, “나도 한국의 딸”과 “모범적인 여성”이라는 수사를 통해 발현되었다. 자신들에게 덧씌워진 편견을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했던 국제결혼여성들의 행위는 한국과 미국의 인정체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의 인정체계에 편입한 ‘모범적인 소수자’-되기는 세계화 이후 한국의 ‘해외동포’ 인정 담론인 ‘조국’ 발전에 공헌한 동포-되기와 결부되었다. 국제결혼여성들은 ‘모범적 소수자’라는 미국의 인정 담론에 기초하여 ‘아버지’로 표상되는 조국의 발전에 공헌한 ‘딸’이라는 수사를 내세워 한국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제결혼여성들의 인정정치는 한국과 미국의 인정체계와 규범을 내면화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다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베스트팔렌적 정의’에 갇혀있지 않았다. 여성들은 부도덕함의 이미지와 선을 긋기 위해 ‘기지촌의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국제결혼여성들은 한편으로 한국과 미국의 인정체계에 편입되어 인정투쟁을 벌이면서도, 다른 한편 내부의 차이를 연대로 뛰어넘었다. 여성들은 ‘한미부인’에서 ‘국제결혼여성’으로 정체성을 재규정하며 국제결혼이라는 연결고리를 연대의 접점으로 삼았다. ‘국제결혼여성’이라는 이름짓기를 통해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상호인정했으며 자신들을 초국적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결혼 전에 기지촌에 있었던 아니든, 남편이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학력이 높은 낮은, 이들은 모두 국제결혼여성의 이름으로 연대함으로써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했다. 이러한 다방향적 인정투쟁은 초국적 여성연대의 임파워먼트를 보여준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고재성, Brides School 3, 1990 (국가기록원 기록물, 관리번호: DSD0000237)  
 고재성, Brides School 4, 1990 (국가기록원 기록물, 관리번호: DSD0000238)  
 국제결혼가정선교회 편, 국제결혼가정 선교전국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  
 수련회 자료집, 2019.  
 외무부 영사국 재외국민과, 「미국 ABC-TV의 국제결혼 한국여성 문제 방  
 영 사건」, 1983(국가기록원 기록물, 관리번호: CA0362660).  
 월드킴와 편, 제15회 World-KIMWA 세계대회 자료집, 2019.10.9.  
 한미여성회 미주연합회, 15th Anniversary Celebration and 9th Leadership  
 Conference 자료집, 2019.

## 2. 연구서

- 국사편찬위원회, 『재외동포사총서: 북미주 한인의 역사』 I-II, 국사편찬위  
 원회, 2007.  
 낸시 프레이저·악셀 호네트 저, 김원식·문성훈 역, 『분배냐, 인정이나?: 정  
 치철학적 논쟁』, 사월의 책, 2014.  
 송전기, 『나도 한국의 딸』, 미래문화사, 1988.  
 악셀 호네트 저, 문성훈·이현재 역,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  
 론』, 사월의 책, 2011.  
 여지연, 『기지촌의 그들을 넘어: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인 군인아내들 이야  
 기』, 삼인, 2007.  
 주디스 버틀러 저, 강경덕·김세서리아 역, 『권력의 정신적 삶: 예속화의 이  
 론들』, 그린비, 2019.  
 주디스 버틀러, 가야트리 스피박, 주해연 역,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산책자, 2008.  
 캐빈 올슨 편, 낸시 프레이저 외 저, 문현아·박건·이현재 역, 『불평등과 모욕  
 을 넘어: 낸시 프레이저의 비판적 정의론과 논쟁들』, 그린비, 2016.

- C. C. Simpson, *An Absent Presence: Japanese Americans in Postwar American Culture, 1945-1960*, Durham, London, Duke Univ. Press, 2002.
- L. H. Y. Kang, *Traffic in Asian Women*, Durham, London, Duke Univ. Press, 2020.
- R. A. Divine, *American Immigration Policy, 1924-1952*,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7.
- S. Woo, *Framed by War: Korean Children and Women at the Crossroads of US Empire*,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2019.
- S. Zeiger, *Entangling Alliances: Foreign War Brides and American Soldiers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 London, New York Univ. Press, 2010.

### 3. 논문

- 김민정, 「조국에 대한 공헌과 재외한인으로의 인정: 미국과 독일의 재외한인 여성 비교」, 『아시아여성연구』 57-1, 2018.
- 김은경, 「1950년대 ‘결혼허가신청서’를 통해 본 한인 여성과 미군의 결혼과 이주: 미국의 이주통제정책과 타자의 ‘은밀한’ 연대」, 『한국근현대사연구』 91, 2019.
- 김은경, 「한국전쟁 후 재건윤리로서의 ‘전통론’과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45-2, 2006.
- 송하연, 「인종주의의 장벽 아래에서 결혼하기: 해방 이후 주한미군 내 한국계 미국인 남성과 한인 여성의 결혼」, 『한국문화연구』 42, 2022.
- 유리 둘란, 「태평양을 횡단한 기지촌: 한국 여성과 미군기지, 그리고 미국 내 군대 매매춘」, 『경계를 넘는 한인들: 이주, 젠더, 세대와 귀속의 정치』, 한울아카데미, 2021.
- 이선옥, 「아그네스 데이비스 김 『나는 코리안의 아내』: 195,60년대 국제결혼 담론」, 『국어국문학』 163, 2013.
- 정현주, 「이주 여성들의 공간 이야기」, 『디아스포라 지형학』, 엘피, 2016.
- B.-L. C. Kim, “Casework with Japanese and Korean wives of Americans”, *Social Casework*, May 1972.

- B.-L. C. Kim, “Asian Wives of U.S. Servicemen: Women in Triple Jeopardy”, Proceeding of the Conference on the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Needs of Asian-Pacific-American Women.
- C. Jordan, “Tracing War Bride Legislation and the Racial Construction of Asian Immigrants”, *Asian American Research Journal*, Vol.1, No.1, 2021.
- E. Payne, “Deportation as Rescue: White Slaves, Women Reformers, and the US Bureau of Immigration”, *Journal of Women's History*, Vol.33, No.4, 2021.
- M. Nakamura, “Families Precede Nation and Race?: Marriage, Migration, and Integration of Japanese War Brides after World War II”, Ph.D. dissertation, Univ. of Minnesota, 2010.
- P. Chappine, “‘Doing Their Bit’ : The USO in New Jersey During World War II”, *NJ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Winter 2021.
- R. Saenz, S. Hwang, B. E. Aguirre, “In Search of Asian War Brides,” *Demography*, Vol.31, No.3, 1994.
- S. Hong, “Another Look at Marriages between Korean women and American Servicemen”, *Korea Journal* Vol.22, No.5, 1982.

#### 4. 기타

정나오미, 「미주국제결혼 한인 여성들의 삶과 역사」, 『미주 한인회, 동포 사회의 발전과 도전』, 미주 한인회 서북미연합회(미간행 원고).

(한성대학교 소양핵심교양학부 조교수 / eyes1000@hansung.ac.kr)

주제어: 재미 국제결혼여성, 인정투쟁, 나도 한국의 딸, 모범적 소수자, 초국적 여성연대

논문투고: 2023. 3. 15. 심사완료: 2023. 4. 20. 게재확정: 2023. 4. 29.

<Abstract>

Multidirectional Struggle for Recognition of  
Korean-American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 Moving beyond “I am also a daughter of Korea” and  
“Model Minority” to Transnational Women’s Solidarity —

Kim, Eunkyung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by Korean-American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has emerged in the midst of exclusionary ethnic nationalism and selective inclusion of multiculturalism and has been expressed through the phrases “I am also a daughter of Korea” and “model minority.” The women have sought to overcome the unethical images imposed on them and gain social recognition and rights. However, their struggle is not detached from the recognition system of Korea and the US. The politics of recognition of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is not confined to the “Westphalian justice.” They did not ignore the shadows of the “hidden hardships of the military camp town” in order to reject the image of immorality, and reached out to support women who have experienced sexual violence in various regions. They also transcended internal differences among themselves through mutual recognition and solidarity in their struggles to preserve their memories. This multidirectional struggle demonstrates the empowerment of transnational women’s solidarity.

Key Words: Korean-American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Recognition Struggle, I am also a daughter of Korea,  
Model Minority, Transnational Feminist Solidarity

www.kci.go.kr